

# 五味와 三陰三陽의 관계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白裕相\*

## A Study on The Relation of O-mi(五味) and Sam-Eum-Sam-Yang(三陰三陽)

Dep.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Baik, You-Sang

From the study on the relation of O-mi(五味) and Sam-Eum-Sam-Yang(三陰三陽),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The system of Sam-Eum-Sam-Yang(三陰三陽) in human body expresses a kind of inner images [象] of continuous life, that implies many complex view-points, in both inside and out-side according to time flow.

Besides, O-mi(五味) is one of very important native properties of all existences, that is accepted from the state they have been located in, and it includes the principles of real nature.

Based on understanding of Sam-Eum-Sam-Yang(三陰三陽), when we investigate properties of O-mi(五味) for practical use, the concepts of contraction and extension[收散], softening and hardening[稟堅], and slowing and fastening[緩急], referred in Naegyeong(內經), directly express the images of Sam-Eum-Sam-Yang(三陰三陽).

Key Words: O-mi(五味), Sam-Eum-Sam-Yang(三陰三陽), Naegyeong(內經)

### I. 序 論

五味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살펴보면, 五行 순서에 따라 五臟에 배속되어 五臟을 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반대로 해당 五臟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藏氣法時論」에서는五味가 각각 收散, 稟堅, 緩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단지 五行 배속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五味의 특성들에 대하여 여러 醫家나 연구자들이 통합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면이 있다. 예를 들면 體用 이론을 도입하여 각 五味에는 體用이 있어서 本體的인 면으로는 五臟에 순서대로 배속이 되지만 用的인 면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또한 味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天氣와 地氣가合一된 다차원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五味의 여러 특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시간적인 先後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火에 苦味가 배속된 것에 대하여 불이 事物을 태우고 나서 남는 재가 쓴 맛이라고 하여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961-0326, baikys@khu.ac.kr

五味를 五行 변화의 결과물의 하나로 설명하기도 하였다<sup>1)</sup>.

이러한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五味의 본질인 어떠한 실체에 대하여 통일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각 특성들을 하나의 논리로서 꿰뚫어 해석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三陰三陽 체계를 방법론으로 하여 五味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藏氣法時論』에 나오는 五味의 收散, 熨堅, 緩急 등의 성질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三陰三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어렵고 五味의 특성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아 이러한 시도가 五味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에는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되나 논의를 시작하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는 가질 것으로 본다.

三陰三陽 체계는 지금까지 事物의 본질을 파악하는 여러 이론들 중에서, 어떤 사물이 가지는 陰陽의 속성과 시간적 五行變化를 종합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내는 이론이다. 오히려 외부에서 陰陽의 象으로만 事物을 바라보는 면이 강한 易의 卦象보다 더 실제적이고 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五味의 본질적인 면을 추구할 때에도 이 三陰三陽의 체계를 잘 활용하면 통일적인 實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三陰三陽의 象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五味에 대한 가장 오랜 기록으로 『書經·洪範』에서는 五行의 潤下, 炎上, 曲直, 從革, 稼穡 등의 本性이 바로 각각 鹹, 苦, 酸, 辛, 甘의 五味를 만든다고 하였다<sup>2)</sup>. 가장 오래된 설명인 동시에 근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물의 적셔주고 내려가는 本性 자체에서 바로 鹹味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體用的 관계나 天氣와 地氣 등의 구조적 설명들,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에 의한 설명들은

들어가지 않으며, 그만큼 이들 모두는 본질을 설명해 내기에는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

## II. 本論

五味의 속성 중에서 그 효능을 설명한 收散, 熨堅, 緩急 등은 일반적인 五行 배속에 비하여 그 방향성이 뚜렷하고 후대의 氣味論도 이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갔다. 따라서 이 속성들에 대하여 三陰三陽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원래 五味의 本性은 타고난 象을 근본적으로 쫓아가므로 그 자체로 직접 五行에 배속되나 위의 속성들은 실제 약물을 운용하는 현실에서 효능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들이므로 오히려 三陰三陽의 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우선 三陰三陽의 象에 따라 五味의 속성들을 설명해 보고 『書經·洪範』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五味 本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화시키고자 한다.

### 1. 酸味

酸味는 수렴하는 작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렴은 表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藏氣法時論』에서 心이 늘어짐을 싫어하니 급히 酸味를 먹어서 수렴시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心은 上部와 表部에 있으므로 가장 밖에서부터 기를 안으로 감싸서 들어오기 위해서 酸味를 쓴다. 그러나 이것은 酸味の 수렴 작용을 빌려 쓴 것일 뿐이며 원래 厥陰風木의 象으로 酸味를 말하자면 수렴의 의미가 달라진다. 厥陰은 아직 形이 나타나지 않은 미미한 상태이므로 表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즉 이때의 表는 멀리 나가있는 表가 아니라 아직 形이 자라지 않은 상태의 곁에 불과하므로 실제로는 내부에 가깝게 붙어있다고 할 수 있다. 內經에서 酸味와 苦味는 陰에 속한다고 하였는데<sup>3)</sup> 각각 厥陰과 少陰에서

1) 시간적인 先後 차이에 의하여 五味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五行 運動變化 자체에서 五味의 속성을 도출하여 설명해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2) 『書經·洪範』에서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者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이라 하였다.(朱熹. 書傳集註. 대전. 學民文化社. 1996. p.459.)

3) 『陰陽應象大論』에서는 “酸苦通泄爲陰.”이라 하였고(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18.

表로 形質이 자라나는 象을 취하여 짙은 맛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에 甘味와 辛味는 發散하는 陽氣를 내포하고 있어 太陰 중 陽土의 성질과 陽明의 象을 각각 취하고 있다.

그러면 厥陰에서 수렴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밖에서부터 싸고 들어오는 수렴이 아니라 작은 긴장이나 떨림이며 곧 spring의 준비 단계를 의미한다. 가벼운 떨림은 곧 밖으로 나가기 위한 몸부림과 같다. 太陽寒水의 견고한 틀 안에 갇혀있는 精을 요동하여 밖으로 形을 깨고 나가야 하므로 단단한 껍질을 깰 수 있는 銳利함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때의 예리함은 힘으로만 강하게 두드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제된 진동이며 그다지 힘이 강하지 않다. 미세한 진동이기 때문에 껍질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厥陰 酸味の 수렴은 金氣가 수렴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藏氣法時論」에서 酸味로 心氣를 수렴한 것은 酸味の 用적인 면을 취한 것이며 본래의 厥陰의 象으로 본다면 앞에서 말한 미세한 긴장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銳利함은 脈象에 비교하면 弦脈에 해당하니 弦脈이 眞藏脈으로 드러날 때 中外가 모두 急해지면서 責責然해 지는 것과 같다. 責責然은 脈의 양측면의 날이 서있는 형상인데 힘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寒熱로서 象을 말하자면 洒洒한 것으로서 오싹한 느낌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도 역시 매섭게 추운 것이 아니다. 色으로 말하면 푸른 색으로서 짙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 붉은 색이나 누런색과 같이 氣血이 밖으로 풍부한 상태는 아니다. 이와 같이 긴장하고 움츠리면서 떠는 것이 바로 風의 현상이다.

風木은 厥陰의 本으로서 陽에 속한다. 안으로부터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太陽寒水의 견고한 씨앗의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답답하다는 의식이 생기면서 風이 만들어진다. 이는 無에서 有가 창조되어 생명이 발현되는 과정이며 긴장과 예리함, 답답함을 이기려는 마음 등이 생긴다. 이때 만들어지는

酸味는, 생명이 이미 터져 나와 形을 키워 계속 밀고 나가는 少陰君火의 苦味와는 다르다. 厥陰은 아직 길으로 보기에 미미한 陰氣이므로 순간적으로 갑자기 터져 나오는 순발력 또는 폭발력은 강하나 실제 절대적인 힘은 강하지 않다. 이때에 가볍게 긴장하는 것이 바로 酸味이며 이에 반하여 좀 더 무겁게 긴장하는 것은 少陰君火의 苦味이다. 또한 厥陰은 답답함을 이기려는 마음과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少陰은 괴로움을 참으면서 힘으로 밀고 나가는 참는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다.

厥陰이 兩陰交盡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內外, 新舊의 모든 陰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기 전의 無形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 속에서 실제로는 안에서 風木이 진동하고 있다. 厥陰의 긴장감과 떨림은 表裏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안으로는 風木이 운동하고 밖으로는 形質의 酸味가 긴장하면서 조금 움츠리는 상태이다. 表部에서 酸味가 氣를 수렴한다고는 하나 실제로 밖에서부터 氣를 속살하여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그 긴장감이 멀리 있지 않고 내부의 風木의 떨림과 함께 붙어서 나타난다.

厥陰은 또한 多血少氣한데 바로 陰形이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血이 풍부해지는 동시에 氣는 鬱結되기 쉬움을 말한 것이다. 「脈解篇」의 12經脈 체제에서 厥陰은 3월에 배속되어 三陰三陽의 순서에서 먼저 들어와 形을 여는 것과 같다. 봄에는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와 陰氣가 풍부해지나 아직 氣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 부족한데 이 때문에 다음에 少陰君火가 힘들게 氣를 밀고 나가게 된다. 「脈解篇」에서 厥陰이 3월로 뒤로 밀려 있는 것은 12經脈 체제 속에서 兩陰交盡의 공백 상태보다는 風氣를 내어 발산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洪範」에서는 曲直이 酸味를 만든다고 하였다. 曲은 준비의 과정이고 直은 發散의 과정이다. 曲은 안으로 굽어서 힘을 비축하는 것이며 直은 이러한 힘을 한쪽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曲과 直은 서로 작용이 다르지만 결국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曲과 直 사이의 전환은 가볍게 자주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이러한 연속 동작은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하다. 반대로 긴장감이 있

「至眞要大論」에서는 “酸苦涌泄爲陰.”이라 하였다.(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188) 통과 涌은 모두 厥陰에서 씨앗의 껍질을 깨고 나가는 象을 취한 것이다.

때문에 曲과 直의 전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 2. 苦味

少陰의 本은 君火 즉 火이다. 火는 투쟁과 성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고통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君火가 단지 五行 중의 火라고 한다면 밝고 뜨거운 기운으로 만물을 기르고 화창하게 하는 좋은 이미지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五行이 六氣로 분화되면서 君火와 相火로 갈라지고부터는 氣와 形이 결합되어 升降出入의 흐름 속에서 같이 돌아가게 되므로 君火는 氣뿐만 아니라 形을 만들고 끌고나가 확장시키는 힘든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sup>4)</sup>. 厥陰이 예리한 움직임을 통하여 꺾질을 깨고 터져 나오는 것이라면 少陰은 수없이 많은 形의 부분들을 繁殖하여 알맞은 자리에 보내야 하는 힘든 일을 하므로 강한 추진력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5)</sup>.

少陰의 君火가 밖으로부터 氣를 벌어들였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形을 키워나갈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밀고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쟁에 임하는 병사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며 그것들이 많이 모이면 사기가 충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싸움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하여 마음을 굳게 먹는다 고도 볼 수 있다.

內經에서 苦味는 단단하게 굳힌다고 하였는데 바로 少陰君火의 내면에 있는 이러한 陰的인 성질을 말한 것이다. 離卦에서 속에 陰爻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과 같다. 굳어있는 것 자체가 현재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苦味를 먹으면 입 안이 쓰면서 괴로워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것과 같다.

氣를 소모하면서 形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苦味가 견고하게 氣를 흘트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나, 苦味가 어떻게 아래로 下之, 泄之, 또는 發之<sup>6)</sup>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가? 이것은 好善과 惡惡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즉, 少陰君火의 경우 가장 욕구가 강한 뜨거운 불과 가장 단단한 굳히는 苦味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먼 미래에 좋은 기운을 밖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위하여 힘든 일을 참아가면서 形을 만들어 가지만 참는 속에는 무언가 싫어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다. 이 마음이 커져가다 어느 순간에 君火가 氣를 확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밖으로 몰아낸다. 君火가 形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재료가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내다가, 더 이상 힘이 부족하여 버티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좋지 않은 재료[形質]가 스스로 氣行을 가로막아 形을 확장할 수 없게 되면, 이러한 방해되는 것들을 邪氣로 보고 강하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방해하는 것들이 주로 형태를 가진 것이므로 그것이 위로 발산하지 않고 아래로 빠지게 된다.

苦味の 發泄이 形을 굳혀서 내보내는 것이라면 陽明의 辛味가 發散하는 것은 氣를 表에서 돌려서 邪氣를 내보내는 것이다. 陽明의 辛味는 버림으로 인하여 부담이 갈수록 가벼워지나, 苦味는 아무리 버리더라도 원래의 견고함은 계속 유지되면서 오히려 투철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진다. 이와 같이 같은 惡惡의 성질이라 하더라도 少陰의 苦味와 陽明의 辛味는 각각 종류가 다른 것이다. 苦味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면 辛味는 形質과 氣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쫓아 邪氣가 나가도록 한다. 그러므로 汗法이

4) 君火에서 神明이 나올 때는 그것만으로는 괴로움이 많지 않으나 神明을 바탕으로 현실을 경영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 즉, 三陰三陽으로 표현되는 標의 形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形을 키워나가는 데 괴로움이 따른다.

5) 少陰의 少는 어리다는 뜻으로 厥陰의 厥이 無나 不足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막 성장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릴 때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 힘도 강하게 나타나며 오히려 장성하면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고 힘도 약해진다. 그러므로 少陰 속에 君火가 있어 강하게 성장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6) 「陰陽應象大論」에서는 “其在皮者, 汗而發之”라 하여 發之가 땀을 내는 것이라 하였는데(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20) 「六元正氣大論」에서는 “調其上, 甚則以苦發之”라 하여 苦味로 發之한다고 하였다.(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155) 실제 苦味는 發汗시킬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張介賓은 苦味로 發한다는 것을 散火로 보았다.(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605)

下法에 비하여 비교적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氣의 흐름에 따라 邪氣를 나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汗法도 지나칠 경우에는 氣의 運行을 가로막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少陰은 內經에서 多氣少血이라 하였으나 이는 12經脈 체계상 表部에서 주로 氣를 運行시키고 形質을 성장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며 苦味를 만들어내는 少陰君火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sup>7)</sup>.

「洪範」에서는 炎土이 苦味를 만든다고 하였다. 炎土는 뜨겁게 타오르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뜨거운 불은 한 번 타기 시작하면 스스로 위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점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苦味가 바로 이러한 노력이 형질로 결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甘味

甘味는 內經에서 完화시킨다고 하였다. 完화는 늘어난다는 것이며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 정지되어 죽는다. 이와 같이 甘味가 가지고 있는 完화의 역할은 일종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여 形을 죽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形을 죽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원래 形은 각 존재마다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이나 지문도 다양하다. 이것은 理에 비하여 氣가 편차가 크고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의 세계를 통합하여 고르게 균등화, 균질화 시키는 것이 바로 土의 작용이다. 표면적으로는 편안하면서도 안정된 세계가 된다. 또한, 甘味가 늘이지게 하는 것이 마치 변화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데, 온갖 다양한 존재들의 빠르기가 똑같이 느껴져서 결국에는 모두 동일한 속도가 되어 버린다. 입체적으로 보면 높낮이 없이 고르게 평면화 되는 것과 같다.

木과 土가 相克이 되는 이유는 木氣는 다양한 존

재들을 낚아 세상에 퍼뜨려 놓는 것이며 土는 그것을 모아 고르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土는 木의 바람을 늦추어서 잠재운다. 다시 말하면 木은 生이요 土는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太陰에서의 죽음은 太陽寒水의 죽음과는 다르다. 太陽의 죽음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죽음으로서 곧 씨앗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씨앗은 形體와 精神의 죽음을 모두 포괄하면서 시간적으로 먼 미래에 대한 삶을 기약하고 있다. 그러나 太陰의 죽음은 단지 다양한 형태들의 파괴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形氣를 함께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죽음이니 陰土에 의하여 융화되고 陽土에 의해 파괴되어 균질화 된 形質들은 다시 陽土의 運化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재편된다. 이때에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陽土와 陰土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心의 관점에서 보면 陽土가 먼저 움직인다. 밖으로 열고 나아가 외부의 氣를 끌고 들어와야 하는데 밖으로 나가는 역할을 陽土가 담당하고 있다. 단, 氣를 일부러 강하게 끌고 들어오지는 않고 넓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氣가 들어오도록 한다. 이러한 陽土는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厥陰, 少陰이 내포하고 있는 相火, 君火의 陽氣와 관련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나아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므로 心의 神明 활동과 비슷하다. 이러한 心의 陽土가 먼저 선행한 후에 모든 形質을 융합하여 고르게 하는 陰土가 따라오게 된다. 이때에 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움직임을 둔화시켜 정지시킨다. 이때부터는 心이 아닌 身의 영역으로 들어와 氣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게 된다. 濕이 形質을 균질화 시키고 나면 다시 陽土가 運化하여 새로운 形質로 바꾸고 이를 다시 온몸으로 보낸다.

甘味를 陽土, 陰土의 역할에 대비해 보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았을 때 먹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온다. 甘味는 맛있는 음식을 대표하는데 맛있다는 생각이 들면 입안에 군침이 돌고 식욕이 올라오게 되므로, 이것이 바로 밖으로부터 氣를 받아들일려고 나오

7) 「血氣形志篇」에서 少陰은 多氣少血이라 하였는데,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52) 少陰이 7월이나 10월로 와있는 것을 보면 12經脈 체계 상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나 초가을의 늦더위에 해당하여 이미 形質이 성장한 후 氣를 밖으로 내어 運行시키는 변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는 陽土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sup>8)</sup>.

또한 甘味는 성질이 끈적끈적하다. 이는 陰土의 濕性과 같다. 예를 들어 설탕은 음식물의 성질을 누그러뜨려 부드럽게 만들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부패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形質을 균질화 시키는 과정인데 이후 새로운 形質로 變化되는 것까지 합하여 우리가 보통 익었다 또는 숙성되었다고 표현한다. 甘味는 기본적으로 陽味로서 속에 陽氣를 내포하고 있다. 이 陽氣가 제대로 작용하게 되면 음식물이 그대로 부패하지 않고 알맞게 익어서 보존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陽土가 질서를 재편하여 새로운 形質로 바꾼 것이며, 이러한 바뀐 形質을 우리가 바야흐로 사용할 수 있다. 재편되기 전까지의 氣는 아직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외부의 氣이다.

太陰濕土에서 太陰의 의미는 다 자란 形을 말하는데 늙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밖으로 벌린 것을 아직 수렴하지 못하여 形이 늘어져서 퍼져 있는 상태이다. 즉, 밖으로부터 들어온 陽氣가 形化되어 속에 그득히 차 있어서, 밖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아직 순수한 精氣의 형태로 수렴되어 갈무리되지는 못한 것이다. 甘味の 象도 바로 이와 같다. 陽土의 숙성을 거쳐서 단 맛으로 변화했지만 아직 精氣가 분리되어 나오지 않아서 이 상태로는 오래 보존될 수 없고 금방 변질되어 버린다. 濕土의 성질이 相火를 거쳐 완전히 타버려 말라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精氣가 빠져나와 수렴될 수 있다.

太陰은 多氣少血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11월에 해당하여 形이 이미 자란 상태에서 차갑고 건조한 기운이 들어와 血이 메말라 버린 상태를 말한다. 즉 經絡 발달에서 太陰이 形만 커서 血이 오히려 形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며 甘味를 만드는 太陰濕土 본래의 象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洪範」에서는 稼穡이 甘味를 짓는다고 하였다. 稼

는 번식을 하고 穡은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다른 五行이 자연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稼穡은 사람의 인생과 비슷하게 설명한 것이다. 中央土는 곧 사람의 구체적인 삶과 象이 같기 때문이다<sup>9)</sup>. 농사일이 비록 힘들지만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억지로 해서만은 아니다. 바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현재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중에 열매가 생겨 익었을 때의 맛을 생각하는 즐거움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괴로움을 달래면서 힘들지만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괴로운 일이 다 끝나고 닳았 때 비로소 얻는 즐거움이 甘味이다. 꼭 해야만 하는 옳은 일에 자신을 희생하여 괴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오히려 나중에 단맛도 많이 얻는다.

이와 같이 힘들게 만들어진 甘味이지만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단맛은 혀를 마비시켜서 그 즐거움이 금방 사라는데 비하여 짠맛은 오래 지속된다. 太陰濕土의 죽음은 일시적이지만 太陽寒水의 죽음은 오래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만큼 짠맛이 속으로 甘味보다 많은 陽氣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甘味の 즐거움과 鹹味の 즐거움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 4. 辛味

辛味는 氣를 퍼뜨린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퍼뜨림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버리고 나면 부담이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邪氣를 내보낼 수 있다.

陽明燥金은 순서상으로 少陽相火 다음에 위치하여 相火가 다 타고난 다음에 清涼한 냉기가 들어오는

8) 內經에서 “辛甘發散爲陽。”이라 하여 甘味를 陽에 배속하였는데(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18) 三陰三陽의 標를 보면 形이 가장 盛한 太陰濕土에 甘味가 배속되어 있어서 陰陽이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陽土의 성질을 취한 것이며 陰土의 경우도 甘味가 陽氣의 氣化 작용을 받으면 곧바로 氣로 진화되어 發散되므로 전체적으로 甘味를 陽에 배속한 것이다.

9) 朱子 선생은 이에 대해서 “稼穡, 獨以德言者, 土兼五行, 無正位, 無成性, 而其生之德, 莫盛於稼穡, 故以稼穡言也. 稼穡, 不可以爲性也. 故不曰而曰爰, 爰, 於也. 於是, 稼穡而已, 非所以名也.”라 하여 土德은 그 자체로 本性이 아니며 속에 감추어져 있어 잘 드러나지 않으나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는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土의 경우에만 ‘이예’라고 말한 것은 곧 다른 本性을 갖추고 나서 비로소 稼穡을 실천하는 것이니 단순한 이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朱熹. 書傳集註. 대전. 學民文化社. 1996. p.460)

것이다. 시간적으로 相火를 끄는 역할을 하므로 선후 관계에 있으나 실제로 相火와 陽明燥金은 서로 경계면을 형성하여 맞붙어 있다고 할 수 있다. 相火는 五行 중에는 없다가 六氣로 표현되면서 분화되어 나온 것인데 陽明燥金의 辛味를 논할 때에는 相火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sup>10)</sup>. 왜냐하면 陽明燥金의 수렴은 少陽相火와의 金火交易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金火交易은 相克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말하는데, 相火가 氣를 발산시켜 모든 形質을 고르게 태우면 形質이 가지고 있는 本然의 성질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각 本性의 차별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淸濁, 善惡, 美醜 등이 나뉘어져 生死가 결정되고, 이때 살아남은 精粹는 燥金의 차가운 기운에 의하여 곧바로 收集되어 안으로 갈무리되어 들어온다. 만약 相火가 힘이 약하면 本性의 발현이 덜되어 形質의 功過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善惡의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반면에 燥金의 냉기가 약하거나 타이밍을 놓쳐 늦게 들어오면 또한 精微로운 陽氣가 수렴되지 못할 것이니, 결국 강한 火氣와 金氣가 서로 치열하게 경계면을 형성했을 때 精氣가 잘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金火交易은 형식은 相克이나 내용상으로는 精氣 수렴의 목적이 같으므로 相生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辛味の 작용에 대하여 「藏氣法時論」에서는 氣를 퍼뜨려서 行氣하여 津液을 이르게 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發汗法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發汗法을 사용하는 최종 목적은 땀을 내고 나서 열이 내리면서 몸이 식고 땀도 그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精氣가 수렴되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곧 散은 精氣의 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辛味는 수렴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방향성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니 전적으로 相火의 發散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發

散과 收斂의 시간적 차이가 크다면 두 개로 나누어 보아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므로 辛味가 散한다는 것은 그 중 하나의 측면만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辛味가 散하는 것은 陽明燥金 本然의 운동이며 精氣가 수렴되는 것은 陽明 운동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陽明은 三陽의 변화 과정 중 氣가 가장 풍부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血氣形志篇」에서는 多氣多血<sup>11)</sup>이라 하였다. 相火가 들어와 形質을 태우기 시작할 때에는 氣血이 모두 盛한 상태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形은 타서 날아가 버리고 氣만 남는다. 形質 속에 함께 있던 粗氣도 타버리지만 少陽相火의 陽氣가 곁에서 풍부하고 안으로는 새로운 精氣가 陽氣의 형태로 만들어져 수렴되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氣가 더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辛味는 이와 같이 多氣한 성질을 가지게 되며 陽明의 形質이 多氣多血한 것을 태우기 위한 陽明 자신의 고유한 운동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辛味の 散을 작용으로만 이용하면 봄에 少陽相火가 작용할 때 쓸 수도 있다. 그러나 陽明의 散이 체표에서 일어나는 것과 달리 봄의 相火는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며 金火交易과 관계없이 단지 太陽寒水の 精을 氣化하는 촉매 역할만 하고 있다. 같은 辛味를 쓰더라도 시작점과 역할이 다른 것이다.

「洪範」에서는 從革이라 하였다. 從은 따름이요 革은 탈바꿈이다<sup>12)</sup>. 從은 法을 쫓는 것이며 革은 매미가 탈을 벗듯이 옛것을 버리고 새 모습을 갖는 것이다. 少陽相火가 태우고 나서 냉기가 들어와 법대로

10) 陽明이 三陽에 속하여 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陽明의 本은 燥金으로 陰에 속한다. 五行의 순환으로 보면 本이 되는 金氣가 肅降하여 萬物을 收斂하는 것이 근본이라 할 수 있으나 한편 陽明의 象 속에는 收斂과 동시에 陽氣의 宣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發散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것이 곧 相火의 작용과 관련되며 內經에서 辛味가 發散하여 陽에 속한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陽明의 象을 취한 것이다.

11) 陽明의 多氣多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三陰三陽의 순환으로 논하자면 陽明의 단계에서는 形은 줄어들고 氣만 수렴되는 것이 원칙인데 「脈解篇」의 12經脈처럼 形과 氣가 공존하는 동물적 상황에서 본다면, 陽明이 전체 氣血 변화를 中央에 위치하여 조절하게 된다. 즉, 陽明보다 이전에 변화하는 太陽, 厥陰은 少氣多血하고 이후에 변화하는 少陰, 少陽, 太陰은 多氣少血하다. 이와 같이 三陰三陽의 氣血多少는 주로 12經脈과 같이 동물적인 동시적 시스템 안에서 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三陰三陽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전반부에 陰形이 자라다가 후반부에 氣가 풍부해지는 것은 동일하다.

12) 거죽은 안에 있는 본질보다 쉽게 바뀔 수 있다. 또한 시간적으로 事物의 內外가 변화함에 따라 마땅히 지속적으로 곁이 바뀌어야 전체적인 氣의 運行을 유지할 수 있다.

냉정하게 肅降을 시작하면 결국 과거의 形質은 벗겨져 나가고 순수 고갱이만 남게 된다. 이와 같은 陽明燥金의 從革 과정에서 辛味가 만들어진다.

## 5. 鹹味

「藏氣法時論」에서는 鹹味는 유연하게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유연함은 단지 근육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太陽寒水는 죽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속에 생명의 존속, 종족의 유지를 꿈으로 가지고 있다. 鹹味는 바로 이러한 죽음과 삶의 꿈을 유연함으로써 유지한다<sup>13)</sup>. 太陽의 죽음은 겉으로 形만을 죽이는 太陰과는 다르다. 太陰의 죽음이 形質의 균질화를 위한 일시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태양의 죽음은 形氣가 모두 사라지는 최종적이고 지속적인 그것을 의미한다.

씨앗 속에는 죽음과 삶이 모두 들어있으나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므로 적당한 거리 속에서 공존해야 한다. 씨앗은 마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아무튼 陽明燥金의 단계까지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 精氣를 수렴해 들어오는 의지가 나뉘어져 있다가 두 마음이 합일되면서 씨앗 속으로 들어와 공존하는 것이다.

太陽寒水에서의 유연함이란, 陽氣를 차가운 물속에 함축하기 위해서 무조건 견고하게 닫아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되며 陽氣가 자연스럽게 보존될 수 있도록 속으로 안정되고 고른 밀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언제든지 조건이 형성되면 안에서 風木이 動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씨앗의 형상을 보면, 껍질이 견고하게 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鹹味의 속성을 왜 堅이 아니라

뒤틀이라고 하였는가. 본으로 본다면 水의 치밀함과 石의 단단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標로 본다면 太陽이 가장 맑고 투명한 陽氣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곧 精, 神과 연결되어 있다. 精神과 연결된 太陽의 陽氣는 걸림이 없이 자유롭게 흘러 다닌다. 그러므로 이러한 太陽의 성질이 함께 씨앗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굳어있지 않고 유연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藏氣法時論」의 五味 補瀉法에서 苦味가 지나치게 굳히므로 腎을 瀉한다고 하였고 鹹味는 유연하게 하여 腎을 補한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太陽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寒水가 차가워 陰에 속하는데 비하여 太陽은 清明하여 陽에 속한다. 陽은 항상 움직이고 밖으로 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太陽도 역시 무엇인가 일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지를 사람의 욕구나 욕심에 비유할 수 있다. 太陽의 욕심은 少陽이나 陽明의 욕심과는 달리 늙은이의 욕심에 해당된다. 늙은 욕심은 겉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되어 있으며 시간적으로 멀리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太陽의 욕망으로 인하여 씨앗 속에 꿈이 간직되는 것이다.

만약 늙은 욕심이 현재의 현실 속에서 과욕을 부릴 때는 갈증<sup>14)</sup>이 생긴다. 현실의 氣血을 다그쳐 일을 하게 하지만 현실을 변화시키기에는 太陽의 힘이 절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아 갈증이 생긴다. 이러한 과욕으로 인하여 氣가 가로막히면 熱이 생기고 血이 가로막히면 瘀血이 생긴다. 津液 속에 鹹味가 많아지면 三焦熱이 발생하고 血分 속에 鹹味가 많아지면 血이 凝泣하거나 血熱이 발생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三焦는 津液의 통로로서 전신으로 津液을 運化하는데 이 津液 속에는 소금이 들어있다. 血 속에도 소금이 들어있으나 血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津液은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鹹味의 특성은 주로 津液에서 드러난다. 또한 血이 心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津液은 膀胱, 腎과 관련이 있으므로 津液 속에 水의 鹹味가 들어있는 것은 당연하다. 津液은 血에 비하여

13) 참고로 「血氣形志篇」에서 太陽은 多血少氣하다고 하였는데(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52) 이는 太陽이 正月에 속하여 三陰三陽 변화의 마지막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精을 氣化하여 三陰三陽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形質을 선도하는 氣는 늘 부족하고, 밖에서 氣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血은 오히려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14) 정신적인 목마름과 갈망을 포함한다.

수동적으로 움직이는데 太陽이 陽明보다 힘이 없고 현실에서도 주장이 강하지 않은 것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욕구와 갈망이 심해지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갈증이나 열이 발행하는 기전은 津液의 陰氣가 부족하거나 또는 鹹味가 많아지는 것이다. 즉, 내세를 위하여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안정되고 고요한 세계로 잠잠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陰氣가 필요한데 이를 미리 벌어들이지 못하였거나 또는 태양의 늙은 욕심이 過하여 津液 속에 짠맛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鹹味の 성질을 현실 속에 비추어 살펴보면, 실제로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배추가 가지고 있던 形이 무너지면서 숨이 죽는다. 이것은 설탕이 음식물의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단맛이 쉽게 썩고 부패되는데 비하여 소금에 절이면 오히려 앞으로는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오래 보존된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막는 동시에 적당한 속도로 발효를 조절하는데 만약 제대로 발효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 陰氣가 강해지는 동시에 陽氣가 풍부하게 함축되어 陰陽을 골고루 갖춘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도 모두 太陽寒水와 비슷한 소금의 특성에 나타난다. 이와 같이 鹹味는 陰陽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至眞要大論」에서 “鹹味涌泄爲陰.”이라 한 것은 鹹味が 本性이 같은 腎으로 달려가, 대소변 등을 조절하는 下焦의 陰氣를 도와주기 때문에 陰이라 표현한 것이다<sup>15)</sup>.

「洪範」에서는 潤下가 鹹味를 만든다고 하였다. 潤下는 적시고 내리는 것이다. 적시는 것은 당연히 물의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事物들을 골고루 적심으로 인하여 氣化를 유도하여 陽氣를 퍼뜨린다고 할 수 있다. 三焦가 津液을 유통시키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陽氣를 선포함으로써 相火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

이 바로 그것이다. 氣는 다니는 통로에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전해질 수 있으며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는 氣는 오히려 소통될 수 없다. 氣가 붙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내린다는 의미는 물이 聚下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水의 본성이다. 모든 氣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순방향이다. 즉 내린다는 것은 順從을 의미한다. 下란 모든 욕망을 잠재우고 아래로 내려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耳順의 상태와 같이 모든 것을 긍정하고 영원한 잠을 취하기 위하여 갈무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鹹味が 바로 潤下의 本性和 같이 모든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고요히 기운을 잠재우는 동시에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근원적인 味인 것이다.

### III. 結 論

三陰三陽 체계는 생명체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表裏 양면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象을 표현한 것으로서 여러 측면의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象이다. 또한, 五味는 비록 인식의 대상이 되는 事物에 대하여 맛이라고 하는 하나의 감각을 통하여 파악하는 속성에 불과하나, 모든 존재들은 자신이 처한 국면에 따라 반드시 고유의 味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味는 자신의 本性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 속에 原理를 담고 있다.

三陰三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五味의 실용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五味의 속성을 가진 本體의 실상에 대해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였다. 우선 三陰三陽의 本이 되는 五行의 변화와 收散, 稟堅, 緩急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本體의 運動을 표현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風木의 發散과 酸味の 收斂은 방향성이 반대인 것으로 인식되나 실제 厥陰의 象으로 보았을 때에는 太陽寒水의 씨앗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가벼운 긴장과 떨림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酸味の 收斂하는 효능의 본질임을 설명하였다. 少陰도 빠른 形質의 성장 속에서 苦味の 단단하게 굳히는 象을 가지고 있으며, 太陰은 形이 부풀고 늘어져 있어 甘味の 완화하는 象을

15) 「陰陽應象大論」에서는 鹹味, 淡味の 陰陽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至眞要大論」에 와서 “鹹味涌泄爲陰, 淡味滲泄爲陽.”라 하여 두 味를 대비하여 설명하였다.(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188) 여기서의 의미는 鹹味が 대소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腎의 陰氣를 돕는다는 것이고, 淡味도 역시 滲泄하여 津液대사를 원활히 하지만 太陽의 氣化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정신을 맑게 만드는 것을 말한 것이다.

가지고 있으며, 陽明은 相火의 태우는 작용을 내포하여 辛味의 發散하는 象을 가지고 있으며, 太陽은 精을 氣化하여 萬物의 질서를 잡아줌으로써 鹹味의 유연한 象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酸味와 苦味が 陰味에 속하고 辛味와 甘味가 陽味에 속하는 이유는 바로 三陰三陽의 表가 겉으로 드러날 때 먼저 厥陰과 少陰에서 形質을 발현시켜 키워나가고 太陰을 지나 陽明과 太陽에서는 精氣를 중심으로 수렴하여 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書經·洪範』에서 말한 五行의 각 本性들이 바로 五味의 속성을 규정하는 근본 原理가 됨을 살펴봄으로써 五味의 특성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밖에 淡味<sup>16)</sup>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相火에 해당하는 특이적인 味가 존재하는가<sup>17)</sup>, 『洪範』의 내용이 과연 五味 本然의 특성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가, 三陰三陽의 기타 속성인 開闔樞나 氣血多少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등등이 후속 연구의 과제들이라 생각한다.

會. 1992.

2. 朱熹. 書傳集註. 대전. 學民文化社. 1996.
3. 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2.

## 參考文獻

### <단행본>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

16) 淡味는 甘味 또는 鹹味가 희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甘味, 鹹味 모두 죽음과 새로운 삶을 원하는 味들이나 陰陽變化의 구분이 있다. 淡味는 滲泄하여 기운을 밖으로 빼냄으로 인하여 몸을 가볍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 만약 淡味가 추구하는 것이 甘味에 가까운 경우는 陽土와 같이 현실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鹹味에 가까운 경우는 영원한 潛藏을 위하여 오히려 모든 즐거움을 버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차이의 원인이 약재 자체의 구성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淡味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淡味가 滲泄하면서 陽에 속하는 이유는 滲泄 이후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며, 淸氣가 위로 올라와 精神을 더욱 맑게 해주기 때문이다.

17) 본문에서 少陽相火는 陽明燥金과 함께 설명하였다. 五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相火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火의 苦味가 相火에 배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君火와 相火의 역할이 분화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같은 苦味 중에서 다시 表裏를 세분화하여 相火의 味를 보아야 할 것이다.